

‘위즈덤 동점포·김선빈 역전타’ KIA, 4연패 사슬 끊었다



한화이글스에 5-3 승...올리, 5이닝 2실점 역투 위즈덤, 3경기 연속 홈런...김선빈, 7회초 적시타



김선빈

위즈덤

KIA타이거즈가 4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KIA는 30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앞서 키움과 한화에 게 연달아 패배를 기록하며 4연패에 빠진 KIA는 이날 승리로 KIA는 3승 5패를 기록, 리그 공동 7위로 올라섰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재현(중견수)-위즈덤(1루수)-나성범(우익수)-최형우(지명타자)-이우성(좌익수)-변우혁(3루수)-서건창(2루수)-김태균(포수)-김규성(유격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아담 올리가 나섰다. 총 99개의 공을 던진 올리는 5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올리는 1회말 상대 선두타자 삼진 이후 안치홍 역시 낮아웃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 플로리얼의 뜬공으로 삼자범퇴에 성공했다.

2회말 역시 상대 선두타자를 낮아웃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타자는 땅볼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세 타석만에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말에는 1사에서 상대 최재훈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았다. 심우준 뜬공 이후에는 황영목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후속타자 안치홍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2사 만루에서는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0-1이 됐다.

KIA는 4회초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나성범이 투수 뒤쪽으로 빠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이어 최형우가 우익수 앞 안타를 연결했다. 이후 성병

살타 이후에는 변우혁이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올리는 4회말 1사 상대 김태균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켰다. 임종찬 뜬공에 이어서는 최재훈을 또 다시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여기에 심우준의 적시타로 경기는 다시 1-2가 됐다.

5회말에는 상대 플로리얼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플로리얼의 도루 실패와 뜬공, 땅볼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막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6회초 또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위즈덤이 상대 2구째 134km 커터를 그대로 건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지난 28일과 29일 홈런을 쏘아 올렸던 위즈덤은 이로써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최상의 타격감을 뽐냈다.

6회말에는 올리 대신 황동화가 마운드에 올랐다. 황동화는 볼넷 한 개를 내줬으나 낮아웃 삼진과 땅볼, 뜬공으로 무실점 이닝을 만들었다.

KIA는 7회초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변우혁의 좌중간 안타, 서건창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김선빈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후속타자 김규성도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를 기록, 김선빈의 대주자 박정우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위즈덤 역시 3루수 쪽 강습 타구를 생산하면서 김규성이 홈인. 경기는 5-2로 뒤집혔다.

7회말 상대에게 1점을 내준 KIA는 9회말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5-3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은행 진성익·조성현, 전국배드민턴선수권 ‘준우승’

결승서 강민혁-왕찬에 2-1 석패 ‘약점 보완 후 다음 시합 대비’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진성익-조성현 조가 '2025 전국연맹총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진성익-조성현 조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 복식 결승에서 강민혁-왕찬(국군체육부대)에게 1-2(21-15 17-21 12-21)로 석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진성익-조성현은 대회 32강에서 이병진-최성창(충주시청)을 상대로 2-1(20-22 21-17 21-15) 승, 16강에서 박문선-박희영(국군체육부대)에게 2-0(21-9 21-15) 완승을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는 전봉찬-서강민(광명시청)을 2-1(24-22 19-21 21-17)로 제압한 뒤 4강에서 최솔규-임수민(밀양시청)을 2-1(21-13 17-21 21-13)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강민혁-왕찬에게 21-15로 첫 게임을 따냈으나, 2-3게임에 내리 내주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진성익-조성현 조가 '2025 전국연맹총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올림픽 이후 개인전 국내선수들이 모두 나왔던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표선발 포인트 점수가 있는 경기에서 결승까지 간 건 의미가 크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라 생각된다”며

“첫 경기부터 타이트하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던 경기였는데 오히려 결승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게 좋았다. 막판 상대가 우리보다 집중력이 좋아 아쉽게 패배했는데 다시 빨리 보완해 다음 시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대한우슈협회 공로상 수상

“광주·한국 우슈 발전에 온 힘”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한국 우슈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우슈협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9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7회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2025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이 대한우슈협회 공로상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 회장은 체육회장 취임 후 광주의 전통 강세 종목이었던 우슈 종목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우슈는 지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1243점을 획득해 우슈 종목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회 전국체전에서 10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유지했을 만큼 광주의 효자 종목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상위 팀이었던 시체육회 소속 우슈팀은 지난 몇 년간 주축 선수 은퇴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유망선수 발굴 및 우수선수 육성의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이재국(광주시체육회·산타)이 제104회·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오른쪽)은 지난 29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7회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2025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대한우슈협회 공로상을 전달받았다.

획득하며 상위권 진입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에 전 회장은 광주우슈 명가 재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꿈나무 선수발굴 지원 등 한국 우슈 발전을 위해 힘썼다.

대한우슈협회는 전 회장이 우슈 종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광주우슈는 물론 한국 우슈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전달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그동안 우슈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공로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광주우슈가 예전 명성을 되찾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우슈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FC, 청소년·어린이 직관 문화 활성화

입장권 각 4000원씩 인하·풍성한 이벤트·혜택 등 추진

프로축구 광주FC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직관 문화 활성화에 나섰다.

30일 광주FC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제주전 홈경기부터 청소년 및 어린이 입장권 가격을 각 4000원씩 인하하고 이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조정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직관 문화를 조성하고 ACLE 8강 진출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축구 붐을 지속시키는 등 지역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된 가격은 온라인 예매 기준으로 W석 청소년 입장권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E/S/N석 청소년 입장권은 1만3000원에서 9000원

으로 조정된다. 어린이 입장권 역시 W석은 1만2000원에서 8000원, E/S/N석은 1만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광주는 이번 가격 조정과 함께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며, 연령별·시기별 맞춤형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입장권 가격 인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재 복귀전 폴타임...민헨, 장크트파울리 3-2 제압

부상으로 3월 A매치에 나서지 못했던 축구 국가대표팀 중앙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복귀했다.

김민재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장크트파울리와의 2024-202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뮌헨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폴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가 공식전에 출전한 건 11일 레버쿠젠(독일)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이후 18일 만이다.

아킬레스건 통증을 겪어온 김민재는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 명단에서 결구 제외됐고, 15일 우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A매치 휴식이 회복에 전념한 그는 마침내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김민재와 에릭 다이어가 중앙 수비진에서 호흡을 맞춘 뮌헨은 장크트파울리를 3-2로 따돌렸다. 최종 리그 2경기 무승(1무 1패)을 끊어낸 뮌헨은 승점 65를 쌓아 분데스리가 선두를 굳게 지켰다. 2위 레버쿠젠(승점 59)과는 승점 6 차이다. 장크트파울리는 15위(승점 25)에 그쳤다.

뮌헨은 전반 17분 최전방 공격수 헤리 케인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저말 무시알라가 상대 선수의 방해를 이겨내고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돌파했고, 흐른 공을 마이클 올리세가 낮게 깔아 차 중양으로 보내자 케인이 오히려 볼을 쫓았다.

리그에서 5경기 득점포 침묵을 갠 케인은 22골로 분데스리가 득점 선두를 질주했다. 뮌헨은 전반 27분 장크트파울리의 엘리야스 사



드에게 동점 골을 내줬지만, 후반 8분 올리세가 발판을 놓은 레오이 자네의 골이 터지며 다시 앞서나갔다.

올리세가 중앙선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올려준 공을 사네가 따라가며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었고, 절묘한 가슴 트래핑 이후 원반 슈트로 마무리했다.

후반 26분엔 자네가 한 골을 더 보태며 뮌헨은 승리를 예감했다.

후반 추가 시간 장크트파울리 라르스 리츠카의 만회 골이 나오면서 자네의 두 번째 골이 결승 득점이 됐다.

김민재는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풋볼 평점에서 뮌헨 선발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6.4점을 받았다. 자네가 9.1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연합뉴스